

시각적 등가성에 대한 한국인의 성향 연구

A study of the Korean Inclination to visual equivocality

오근재(oh, keun - Jae)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조형학부 교수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1-2. 연구의 목적
- 1-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사항

2. 본론

- 2-1. 시각적 등가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유사선행 연구
 - 2-1-1. 공간 및 공간의 수용자
 - 2-1-2. 유사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 2-2. 시각적 등가성에 대한 한국인의 성향
 - 2-2-1. 흙배 무늬에 나타난 비등가성
 - 2-2-2. 등·비등가성에 대한 한국인의 성향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 2-2-3. 기초조사 분석을 통한 발견점

3. 결론

(要約)

본연구는 시각적 등가성에 대한 한국인의 성향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자연현상에서 흔히 조우할 수 있는 시각적 동등성에 우리가 동일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일부 심리학자들의 유사연구를 참고로 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인의 성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발견점을 가져다 주었다.

-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각적 등가성은 한국인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 화면에서의 대각선은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방향보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방향으로 보다 상승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지적인 사실로 드러났다.
- 화면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무거워보인다는 지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무시할만한 정도 이내이다.
- 자연현상의 묘사나 이에 대한 관찰자의 시각물 수용에

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오른손 듣기가 대부분인 한국인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한국인의 좌측 우위사상에서 오는 전래적인 시각적 표현은 지금도 우리 문화 속에 녹아 있다.

이상의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한국인에 있어서 시각적 등가성은 대체적으로 실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경도되는 일반적인 성향을 한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Korean inclination to visual equivocality. Similar studies conducted by several psychologists were reviewe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we can put equal value on the visual equivocality which is often shown in natural appearance. This Korean inclination was also investigated with the help of a public surve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rived from the study.

- In reality, there is no visual equivocality for Koreans except in some specific cases.
- It is true that, on a screen, a diagonal line from the lower right to the upper left produces a stronger feeling of upward tendency than one from the lower left to the upper right.
- The idea that the right side of a screen looks heavier than the left one was not supported and should be rejected for Koreans.
- It was discovered that the user interface is working when a person is describing a natural appearance or looking at a description. This fact is generally accepted for Koreans, the majority of whom are right-handed.
- Until now, the idea of a Korean superiority toward the left side in visual expression has been found in our culture.

In short, it was uncovered that Korean people generally do not have visual equivocality but, instead, have an inclination to left side rather than the right from various aspects.

(Key Words)

visual equivocality, Korean inclin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우리들이 디자인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시각대상 상황묘사에서 등가성 시각물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를테면 비가 내리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시계추가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 등은 그것들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혹은 관찰자가 어느 방향에서 그것들을 관찰하고 있을 때 시간의 절편을 설정하는가에 따라 좌우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시각적 측면에서 볼 때 어느 편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동등한 가치, 즉 등가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좌우나 상하가 바뀌는 일은 화면의 위계질서에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 할만한 가치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자연 현상에서 특별한 의도 없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특별한 개연성이 없이 무작위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모든 관찰자들에게 완전한 등가성으로 느껴지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차와 문화적으로 학습된 요인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점이 본 논문의 가설이며 만일 이러한 가설이 완전 등가성에서 다소라도 벗어나는 현상이 발견된다면 이는 디자인현장에서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일 자동차의 우측에 앉기를 오랫동안 즐겨온 사람들은 사각 창을 통하여 모든 사물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흐르는 현상을 주로 목격하였을 것이며 이렇게 학습된 그들에게는 화면의 왼편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더 호감을 갖게 될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만일 이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등가성을 지닌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나름대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또는 한국인이 어떤 특정한 시각경험이나 학습된 내용, 이를테면 독서습관이라든가 음양오행설에 따른 좌우개념 등의 영향으로 완전한 등가성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또한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된다면 임의성이 강하고 불특정성과 무작위성이 강하다는 점만으로 디자이너가 특별히 그러한 점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면의 등가성과 이와 유사한 시각물은 우리가 매일처럼 목격할 수 있고 또 수 없이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들 모두가 공기나 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들에 대한 존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지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등가성 또한 그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항용 일어나는 시각상황이기 때문에 시각방향이 바뀌었을 때 우리들의 정서에 다르게 이입될 가능성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화면구성에서 모든 요인을 완벽한 매질과 대칭으

로 채워넣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런 변화도 추구할 수 없다는 마틸라 기카의 주장¹⁾에 동의한다면, 비록 이러한 연구가 화면구성에 비록 적은 영향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화면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점에도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러한 등가성 시각물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처럼 수용자들에게 동일한 이미지나 가치를 주고 있는가? 만일 비등가성이 드러난다면 이들이 결과적으로 한국인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비등가성의 성향을 띠는가에 대한 발견에 있으며, 만일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 그것들이 디자인현장에 활용할만한 유의미성을 띠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차적인 목적은 만일 비등가성이 어느 정도 발견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제한사항에서 다시 정리하여 언급하겠지만, 다만 이차적인 관심은 상당 정도의 기간에 걸친 관찰과 문헌연구, 조사통계 등의 방대한 요구사항과 사회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 성향연구라는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에서 본다면 또 다른 연구테마에 해당되므로 본고에서는 대체적인 추론에 머물 가능성이 있음을 먼저 말해두고자 한다.

1-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사항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을 통한 체험조사 및 심리조사를 통하여 연구목적에 달성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는 민화나 한국무늬에 등장하고 있는 각종 시각물들의 등가성 및 비등가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해 심리학적인 유사 선행 연구결과를 참고할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의 이론과 심리학의 연구 사이에 서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 두 영역 사이에 만족할만한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들 연구들이 양자가 지니고 있는 상호 관심사의 해결을 위해 이루어진 연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고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학제간의 연구성과를 한꺼번에 성공적으로 묶어내기 어렵다는 문제는 당분간 구조적인 제한점이 될 것이다. 이미 연구목적에서 대체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는 일차적으로 등가성 시각물에 대한 한국인의 성향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제한사항을 설정하고자 한다.

- 성향분석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그러한

1) 신시아 메리스 단치크 저, 오근재 역, 디자인 디멘션스, 미진사, 2001, p.76

성향의 근거제시는 추론에 가까울 수 있다.

- 비록 추론에 가깝다 할지라도, 이러한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는 각종 시각적인 원리나 요소들, 이를테면 공간, 균형, 무게, 운동, 리듬 등을 인간 심리에서 완전하게 배제하고 순수한 원인만을 추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관찰자의 성향과 비교 분석하는 일이 보다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연구인력 및 경제적인 한계로 인하여 한국인의 성향연구로 한정한다.

2. 본론

2-1. 시각적 등가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유사선행 연구

2-1-1. 공간 및 공간의 수용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은 모든 가시적인 것들과 모든 현상과 사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장이다. 이 공간은 질서나 혼돈의 유무에 상관없이 존재하며 모든 것의 앞에 있고 모든 것들의 위에 있으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화가나 디자이너들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화면에 묘사하는 순간 공간과 그 안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관찰자의 시각창(視覺窓)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화면의 가장자리에 의해 극히 현실적인 선택된 대상으로 전환된다. 묘사되는 대상들이 화면의 가장자리에 의해 트리밍되어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관찰자의 특정한 어떤 관찰시점과 관찰시각이 이미 규정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주된 관심의 표적이 되었음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림 1과 2에 등장하는 주전자들은 그 방향이 완전히 대극을 이루고 있다.



그림1



그림2

이 그림의 대상은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자리잡을 수 있고 관찰자도 임의로 그 관찰시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등가성에 대한 논의 공간의 규정에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시각적 등가성은 이와 같이 공간 안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시각대상들과 이들을 관찰하는 입장에 있는 공간의 수

용자 사이에서 불특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각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2-1-2. 유사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시각적 등가성만을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와 관련된 유사연구가 단편적으로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은 루돌프 아른하임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주장과 일부 심리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인간의 타인지각에 있어서 친숙성과 사회적 호의에 관한 연구 내용이다.

아른하임은 미술과 시지각이라는 그의 책에서 균형항목에서 이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³⁾

그는 화면의 상하문제와 좌우문제를 이 항목에서 다루었는데, 상하문제는 랭펠드의 이론과 고딕성당의 건물에서 장미창의 위치를 통해서 위 부분에 비해 아랫부분이 빈약해 보일 가능성에 보상효과를 주고 있다는, 일종의 착시 교정의 수준 이상을 다루지 않고 있다. 더구나 상하문제는 공간에서 불특정하게 바뀌어 보일 가능성이 좌우에 비해 그 경우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취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리고 일부 생득론자들의 주장처럼 우리의 가상적(假想敵)이 위나 아래로부터 침입해 들어올 가능성보다 좌우 측면으로부터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간은 생득적으로 상하보다는 좌우에 더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좌우문제에 대해서 그는 상하문제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의 좌우가 바뀔 경우, 원편에서 오른쪽으로 임혀지는 그림의 속성 때문에 의양도 바뀌고 의미도 상실된다(뵐플린Wolfflin).

- 화면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무거워보인다.

- 감상자는 화면의 원편에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경험한다. 연극이 시작될 때 막이 오르면 관객은 원편을 먼저 보게 된다(딘Alexander Dean, 개프론Mercedes Gaffron).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전개해보겠다. 먼저 임혀지는(감상되어지는) 차례를 말하고 있는 뵐플린의 논리는 이런 것이다. 이는 인간의 감각 본연의 맨 아래 근본에까지 미치고 있는 심리기제의 어떤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면서 그림은 흔히 원편에서 오른쪽으로 임혀지며 이는 독서습관에 연유할 것이라는 주장이다.⁴⁾ 그는 또 대뇌 피질의 우열현상과도 연관을 짓고 있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좌측 대뇌피질부는 말하고, 쓰고, 읽는 높은 대뇌중

2) 오근재/ 민화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디자인학 연구/ Vol.9,1994/

3) 루돌프 아른하임 저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홍성사/ 1982 p.p. 41-56, p.p. 495-502

4) 루돌프 아른하임/전제서/ p. 47

추를 갖는다. 만약에 이 우성(優性)이 왼편 시각중추에 똑 같이 적용된다면, 그것은 우측 시야 안에서 지각되는 지각 데이터에 편향되는 우리들의 시각 데이터 인식에 있어 좌우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오른쪽을 향한 시 자극이 더 강하고, 그래서 오른쪽을 향하여 움직이는 물체는 더 눈에 띄어 보인다.”

벨플린의 이러한 주장에는 수긍할 수 없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를테면 위의 문장에서 “만약에 이 우성(좌측대뇌 피질)이 왼편 시각중추에 똑 같이 적용된다면.....”에서 시각중추가 시상하부에서 교차하여 그림3처럼 좌측대뇌피질로 그 자극이 전달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안구의 우측반구의 자극, 즉 왼편에 있는 사물에 대한 자극이 우성인 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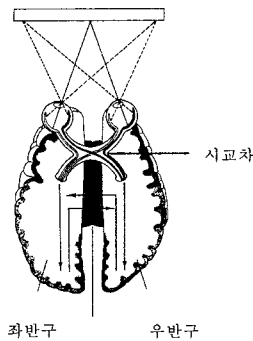


그림3. 뇌 내의 시교차

반구의 대뇌피질로 전달되기 때문에 좌측의 시각 자극이 더 편향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왜 오른쪽을 향하여 움직이는 물체가 더 눈에 띄는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러한 설명량보다는 우리들의 시각 데이터 인식에 있어 좌우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혹 이러한 시지각 현상이 연극무대의 왼편에서 주인공이 등장하리라는 기대감과 상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화면의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 더 무거워보인다는 주장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면 좌우가 바뀐다는 사실은 화면의 균형감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좌우가 등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루돌프 아르하임이 저술을 하였던 1970년대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사람들의 성향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인들에게도 동일한 편향적인 경중감이 존재하는지는 이제 조사를 통하여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지만, 어떻든 조사분석을 통해 한국인에 있어서도 그러한 편향적 경중감이 존재한다면 이는 좌우 문제에 있어서 등가성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심리학자들의 유사연구도 있다. 그것은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던 인간의 타인지각에 있어서 친숙성과 사회적 호의에 관한 연구이다. 결국 연구자들은 친숙성이 사회적 호의를 낳는다는 가설을 일부 입증하였다. 말하자면 자주 들어온 멜로디를 더 좋아하고 자주 접해왔던 브랜드에 더 친숙한 정서감을 가지며 접촉빈도가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들은 fp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를 가지고 심리조사를 하였는데, 그림4에서 오른쪽의 모나리자 상에 더 높은 친숙도를 반응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⁵⁾ 우리가 증명사진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낯설어하는 까닭은 그것이 경영상(鏡映像)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평상시에 노출된 자기 얼굴상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익혀온 경영상인데 실제 촬영되어 얻어진 사진은 바른 상이기 때문에 친숙도가 떨어진다



그림4-1. 레오날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그림4-2.

이러한 현상은 물리적인 등·비등가성의 문제에 기인한다라기 보다는 접촉빈도와 친숙성이라는 다분히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학습된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든 물리적으로 임의로 노출될 수 있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좌우가 바뀌었을 때 동일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또 다른 측면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유사선행연구의 소개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결론은 그것이 인간심리의 기체에 바탕을 두었던,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결과이든 시각적 좌우 등가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현상을 낳는 요인이 이상에 열거한 논리로서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일 것이다.

5) 헨리 글라이트만 저. 임능빈 외 공역/ 심리학개론/ 교육과학사/ 1986/ p. 443.

2-2. 시각적 등가성에 대한 한국인의 성향

2-2-1. 흉배 무늬에 나타난 비등가성

이제까지 우리는 이 문제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선행연구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이론들은 화면에 있어서의 무게감이라든가 수용자의 독서습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감각심리적인 추론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내용과 밀착되는 내용도 있지만 합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서습관이 문화적으로 학습된 패턴이라는 가정(假定)에 대체적으로 반하는 한국적인 자료가 있다. 그것은 조선시대에 문화를 선도하였던 계층으로서의 왕과 양반들이 사용하였던 흉배무늬이다. 조선시대의 독서습관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내리글자를 우측상부에서부터 읽어 내려가 좌측하부에 이르는 좌하방의 방향성을 띠는 대각선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그림을 읽어 가는 방향 또한 왼편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가설에 합당한, 문화적으로 훈련된 패턴에 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흉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왼편에서 오른편을 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여기에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흉배무늬의 대부분을 말하는 것임). 다음 그림들을 살펴보자. 그림 5의 쌍학흉배는 당상관의 일상복에 붙었던 흉배무늬이다. 쌍학은 서로가 서로를 에워싸듯 어울려 있지만 아랫부분에 있는 학이 윗부분에 있는 학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의 단학흉배나 그림 7의 단호흉배를 보면 당시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는 대상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이들은 한결 같이 오른편에서 왼편을 향하고 있다. 물론 대원군이 폐용하였다는 기린무늬와 같이 반대방향을 보고 있는 예외적인 대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당시의 독서습관과는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들이다.⁶⁾



그림 5. 쌍학흉배



그림 6. 단학흉배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독서습관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좌측 우위사상을 가졌던 유교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의 관직의 위계질서에 근거를 두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당시의 직관제는 의정부에 영의정, 좌우의정을 두었는데



그림 7. 단호흉배

서열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위계를 가지고 설정되었고, 그밖에도 승정원의 승지들과 한성판윤 밑에 두었던 좌우윤 등 좌우의 명칭이 사용되어야 하는 조선시대의 모든 관직은 좌를 우보다 우위에 두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⁷⁾ 또 왕을 현무의 위치에 둔다면 백호에 문관을 배치하였고 남자의 수상을 볼 때는 왼손의 것을 보아야한다는 점에서도 이 현상의 근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⁸⁾

지금까지 논급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국인에 있어서도 반드시 독서습관에 영향을 받아 시각언어가 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작은 결론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점은 우리가 막연히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시각적 등·비등가성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일보다 실제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분석해보는 일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2-2. 등·비등가성에 대한 한국인의 성향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성향분석을 위해서 별첨과 같은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은 부천대학생 남녀 109명에게 2002년 9월 17-18일에 실시하였는데 실제 유효설문지는 101부가 회수되었다. 가능한 한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결과가 설문조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 8개의 설문항 중에서 단답형 설문 4개항을 설정하였고 이를 앞부분에 편집하였다. 왜냐하면 선택형 설문에서는 피시험자의 능동성 측정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고, 또 이것을 선택형 설문으로 바꾸어 반응을 측정할 때 제시물의 설정 위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말하자면 먼저 제시된 것과 나중에 제시된 것, 위에 제시된 것과 아래에 제시된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위치 정보가 그림의 구조와는 상관없이 작용하므로써 이들 사이에 미묘한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선택형 설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구체적인 인물상 대신에 일러스트레이션된 그것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위

7) 교육출판공사 편집실, 유홍렬감수/ 한국사대사전/ 교육출판사/ 1980/ p. 1395, p. 1744.

8) 시에송령 저, 김홍경, 신하령 공역/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 연암출판사/ 1995/ p.423

6)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총서:2 흉배/ 국립민속박물관/ 2000/ p.p. 8-80(이학/ 한수문화/한국자문학회/1986 / p. 97)

| 1. 성별 | 2. 듣는 손 | 3 (비내리는 방향의모사) | | | | 4 (시계추의 방향의모사) | | | | 5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 | | | | 6 (망치머리의 방향) | | | 계 |
|-------|---------|----------------|------|------|-----|----------------|------|------|-----|-----------------|------|------|----|--------------|------|-----|-------|
| | | 좌하 | 수직 | 우하 | 무효 | 좌하 | 수직 | 우하 | 무효 | 좌측 | 중앙 | 우측 | 무효 | 좌측 | 우측 | 무효 | |
| 남 | 오른손 | 19 | 7 | 3 | 1 | 16 | 5 | 9 | • | 11 | 9 | 10 | • | 22 | 8 | • | 30 |
| | 왼손 | 2 | • | • | • | 1 | 1 | • | • | 2 | • | • | • | 1 | 1 | • | 2 |
| | 양손 | 2 | 1 | • | • | 1 | 1 | 1 | • | 2 | • | 1 | • | 1 | 2 | • | 3 |
| | 소계 | 23 | 8 | 3 | 1 | 18 | 7 | 10 | • | 15 | 9 | 11 | • | 24 | 11 | • | 35 |
| | 백분률 | 65.7 | 22.9 | 8.6 | 2.8 | 51.4 | 20.0 | 28.6 | • | 42.9 | 25.7 | 31.4 | • | 68.6 | 31.4 | • | 100.0 |
| 여 | 오른손 | 31 | 26 | 5 | • | 27 | 19 | 14 | 2 | 26 | 8 | 28 | • | 44 | 17 | 1 | 62 |
| | 왼손 | • | • | 2 | • | 2 | • | • | • | 2 | • | • | • | 1 | 1 | • | 2 |
| | 양손 | 2 | • | • | • | 1 | 1 | • | • | 1 | • | 1 | • | 1 | 1 | • | 2 |
| | 소계 | 33 | 26 | 7 | • | 30 | 20 | 14 | 2 | 29 | 8 | 29 | • | 46 | 19 | 1 | 66 |
| | 백분률 | 50.0 | 39.4 | 10.6 | • | 45.5 | 30.3 | 21.2 | 3.0 | 43.9 | 12.2 | 43.9 | • | 69.7 | 28.8 | 1.5 | 100.0 |
| 총계 | | 56 | 34 | 10 | 1 | 48 | 27 | 24 | 2 | 44 | 17 | 40 | • | 70 | 30 | 1 | 101 |
| 백분률 | | 55.4 | 33.7 | 10.0 | 0.9 | 47.5 | 26.7 | 23.8 | 2.0 | 43.6 | 16.8 | 39.6 | • | 69.3 | 29.7 | 1.0 | 100.0 |

[표-2] 선택형 설문에 따른 응답빈도(문항 1과 2는 표집단의 성격임/ 아래 표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모름'을 0 베이스로한 4점척도에 따른 정서적 기울기 지수임)

| 1. 성별 | 2. 듣는 손 | 7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 | | | | 8 (튀어오르는 방향) | | | | 9 (일러스트레이션의 방향성) | | | | 10 (앵커다움) | | | | 계 |
|-------|---------|-----------------|-----|--------------|----|--------------|-----|--------------|----|------------------|------|--------------|----|--------------|-----|--------------|----|-------|
| | | 좌향 | 모름 | 우향 | 무효 | 우상 | 모름 | 좌상 | 무효 | 좌향 | 모름 | 우향 | 무효 | 좌측 | 모름 | 우측 | 무효 | |
| 남 | 오른손 | 18 | 1 | 11 | • | 19 | 2 | 9 | • | 14 | 4 | 12 | • | 19 | 1 | 10 | • | 30 |
| | 왼손 | 1 | • | 1 | • | 1 | • | 1 | • | 2 | • | • | • | 1 | • | 1 | • | 2 |
| | 양손 | 3 | • | • | • | 2 | • | 1 | • | 3 | • | • | • | 3 | • | • | • | 3 |
| | 소계 | 22 (1.77) | 1 | 12 (1.50) | • | 22 (1.73) | 2 | 11 (1.73) | • | 19 (1.68) | 4 | 12 (1.67) | • | 23 (1.74) | 1 | 11 (1.82) | • | 35 |
| | 백분률 | 62.9 | 2.8 | 34.3 | • | 62.9 | 5.7 | 31.4 | • | 54.3 | 11.4 | 34.3 | • | 65.7 | 2.9 | 31.4 | • | 100.0 |
| 여 | 오른손 | 34 | 4 | 24 | • | 33 | 3 | 26 | 2 | 31 | 7 | 24 | • | 24 | 5 | 33 | • | 62 |
| | 왼손 | • | • | 2 | • | 2 | • | • | • | 1 | 1 | • | • | 2 | • | • | • | 2 |
| | 양손 | 1 | • | 1 | • | • | 1 | 2 | • | • | 1 | 1 | • | • | 2 | • | • | 2 |
| | 소계 | 35 (1.89) | 4 | 27 (1.37) | • | 35 (1.91) | 3 | 28 (1.61) | 2 | 32 (1.91) | 9 | 25 (1.72) | • | 26 (1.96) | 5 | 35 (1.60) | • | 66 |
| | 백분률 | 53.0 | 6.1 | 40.9 | • | 53.0 | 4.6 | 42.4 | • | 48.5 | 13.7 | 37.8 | • | 39.4 | 7.6 | 53.0 | • | 100.0 |
| 총계 | | 57 (1.84) | 5 | 39 (1.41) | • | 57 (1.84) | 5 | 39 (1.64) | • | 51 (1.80) | 13 | 37 (1.70) | • | 49 (1.86) | 6 | 46 (1.65) | • | 101 |
| 백분률 | | 56.4 | 5.0 | 38.6 | • | 56.4 | 5.0 | 38.6 | • | 50.4 | 13.0 | 36.6 | • | 48.5 | 6.0 | 45.5 | • | 100.0 |

치단서에 대한 내용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좌우에 동일한 인물상을 방향만 바꾸어서 배치하였다. 그리고 만일 피설문자가 어떤 설문안에 대해 비등가성을 응답한다면 그 심리적 기술기 정도가 얼마인가를 동시에 체크하도록 설문안을 작성하였다. 이 측정지수는 대학생 이상의 고학력 대상에게 흔히 주어지는 7점 척도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이 설문안에는 역반응 영역과 중앙점(여기에서는 등가성에 응답할 경우에 해당함) 조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중앙점을 0으로 시작한 4점 척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설문자가 제시된 시작물에서 비등가성을 응답하였을 경우, 그 정도를 약간 그렇다(1점), 대체로 그렇다(2), 아주 그렇다(3점)로 그 결과의 상가평균값을 구하였다. 잘 모르겠다면 0점으로 처리하였다.

우선 설문조사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두었던 단답형 설문의 반응은 표-1과 같이 나타났다. 3번 문항은 주어진 빈 화면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을 묘사해달라는 설문이었다.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우상에서 좌하를 향한 대각선 방향으로 묘사한 그림 8-1과 같은 묘사가 55.4%를 차지하였다. 응답자 중에 왼손잡이가 4명(약 4%)이 있었는데 이들 중 3명은 반대방향인 그림 8-3과 같이 묘사하였고 단 1명만이 그림 8-1과 같이 응답하였다. 양손잡이는 5명(약 5%)이 있었는데 이 중 4명은 그림 8-1과 같이 응답하였고 1명은 그림 8-2와 같이 수직방향으로 응답하였다. 특기할만한 반응은 비가 바람에 날리는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한 상황묘사로서의 수직방향의 묘사에 여성 응답자 중에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림8-1. 비내림

그림8-2

그림8-3

설문안 4번의 시계추 묘사에 있어서도 반응은 다음 그림과 같이 3 가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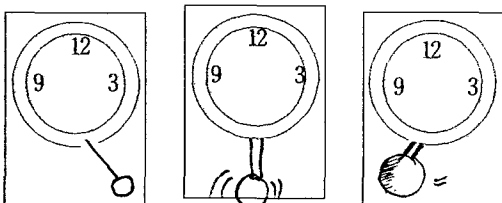


그림9-1. 시계추

그림9-2

그림9-3

대체적으로는 그림9-1과 같은 방향으로 묘사하였고 그 수

준은 의미가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수직방향의 묘사가 여성 응답자 중에 상당 정도 있었다. 설문5의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의 위치 표시에서는 4개의 설문안 중에서 유일하게 등가성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자면, 좌우 어느 쪽에도 기술을 가지지 아니한 응답이 발견되었다. 유의할만한 내용은 무대의 막이 오르기 시작할 때 좌우 어느 쪽에선가 주인공이 등장하리라는 심리적 기대감 대신 무대 중앙부분에 주인공이 위치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상당 정도 발견되었다. 이는 조사자가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응답 내용이기도 하다.

설문 6의 망치 그리기에서는 그림10처럼 망치의 머리가 화면의 왼쪽에 위치시킨 그림이 남녀 공히 70%에 육박할 정도로 우세하였다. 그러나 왼손잡이와 양손잡이 총9명 중, 망치머리를 오른쪽으로 위치시킨 응답자가 5명이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왼손잡이와 양손잡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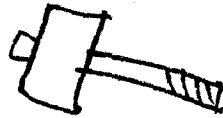


그림10. 망치를 가로로 그리기

다음 4개의 설문은 선택형 설문으로서 그 응답빈도는 표-2와 같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네 개항의 선택형 응답빈도는 단답형 설문에서 비내리는 방향 묘사나 망치머리 그리기에서처럼 극심한 심리적 기술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왼쪽을 향한 대상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그림11-1. 인물의 포로필



그림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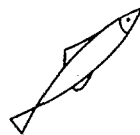


그림12-1. 물고기의 튀어 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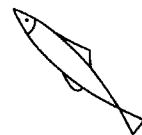


그림12-2



그림13-1. 김상택 만화세상/중앙일보 9월



그림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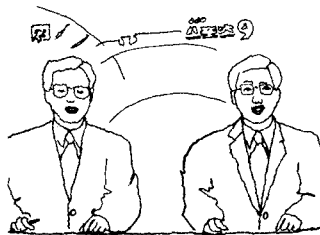


그림14. 앵커다움

설문항 7번이나 설문항 13번은 실제적 내용 면에서 보아 동일한 성격의 설문이다. 하나(그림 11)는 인물이 바라보는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의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는 요인을 없앤 제시물이고 또 하나(그림 13)는 몇 가지의 현실적인 장식요소들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림의 내용상 분명한 좌우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제시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과는 물고기의 튀어 오름에 대한 반응과 더불어 매우 비슷하게 집계되었다. 그리고 심리적 기울기의 지수 또한 왼쪽 방향성 제시물에 더 높은 강도(1.8대 1.6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설문항 10번의 앵커다움에 대한 조사에서는 시각적 등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남녀가 상당 정도의 반대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들은 왼쪽 인물에 앵커다움을 더 많이 표시하였고 여자들은 그 반대로 오른쪽 인물에 더 많은 반응을 보였다. 이 결과의 상가평균은 근소한 차이로 왼쪽 인물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의미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리적 기울기의 강도에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풀어 말하면, 왼쪽 인물에 대한 응답자가 오른쪽 인물에 대한 응답자보다 더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2-3. 기초조사 분석을 통한 발견점

지금까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본 결과,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각적 등가성은 한국인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이 밝혀졌다. 앞서의 선행연구에서 간단히 논급을 했었지만 루돌프 아르하임이라든가 빌플린, 개프론 등 일부 학자들은 등가성 대신 시각적 기울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들의 주장과 한국인들의 성향 사이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아르하임이 미술과 시지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화면에서의 대각선은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방향보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방향으로 보다 상승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지적은 사실로 드러났다. 설문항 8번 물고기가 튀어 오르는 듯한 상승감은 56.38 정도만큼 차이가 있었고 심리적 기울기의 지수 역시 0.2만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화면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무거워보인다는 지적은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무시할만한 주장점임이 드러났다. 설문항 9의 김상택 일러스트레이션은 분명 오른쪽에 더 많은 시각요소(의미 있는 대상들)가 설정됨으로 해서 오른쪽의 무게감이 시각요소의 의미성과 중첩되어 심각한 기울기가 느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높은 선호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미세하기는 하지만 심리적 기울기의 지수 역시 왼쪽그림(그림13-1)쪽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극이 시작될 때 막이 오르면 관객은 왼편을 먼저 보게 된다는 개프론(Mercedes Gaffron)의 주장도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막연한 기대수준을 깨고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님이 드러났다. 설문 결과는 미세한 차이로 왼쪽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준은 의미수준의 이하(43.6: 39.6)로 볼 수밖에 없으며, 특히 좌우뿐만 아니라 중앙 부위에 대한 기대감조차 관찰자들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연극이 관객의 의외성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통한 학습된 경험의 영향이 아닌가 짐작된다.

비내리는 방향의 묘사(그림8-1, 8-2), 시계추의 묘사(그림 9-1, 9-2), 망치의 가로그림(그림10)에서는 앞서 설문안 기초조사에서 밝힌 바처럼 왼쪽 지향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는 피설문자의 대부분(약 91%)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묘사의 편이성이 작용하였거나 망치의 손잡이를 잡는데 있어서 편이성,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작용하였음직하다.

왼손잡이 응답자 4명(약 4%) 중, 3명은 반대방향인 그림 8-3과 같이 묘사하였고 단 1명만이 그림8-1과 같이 응답하

었다는 사실과, 왼손잡이와 양손잡이 총9명 중, 망치머리를 오른쪽으로 위치시킨 응답자가 5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묘사의 편이성 또는 손잡이를 잡고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인이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짐작을 뒤받침해주고 있는 신체 운동과 질서에 대한 이론이 있다. 독일의 지각심리학자인 클라인트(B.Klient)는 그의 저서 '인간의 시각과 조형의 발견'에서 '시각적 배치가 완료되고 그 나름대로의 질서가 고정되면 본다는 것은 행위의 뒤로 물러나 버린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말하자면 손운동이나 발운동, 몸짓에 익숙해져버리면 어떤 대상을 보고 지각하는 일보다 언제나 그에 대응하는 행위가 시지각에 앞선다는 것이다.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한 계단 한 계단의 상태를 지각하고 그때마다 대뇌피질에서 운동신경계에 지시하여 계단을 오르는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보는 일과 오른다는 운동 사이에 조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일 어떤 순간에 이 조율에 이상이 발생하면 우리는 헛달게 된다.

이러한 이론을 원용한다면 빗줄기를 그리는 일이나 망치 손잡이를 어느 쪽에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 시계추를 그리는 일은 근본적으로 오른손잡이의 운동습관이 만들어낸 시각적 비등가성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말하자면 이 것은 우리의 지각이나 문화적 학습의 결과물이 아니라 단순한 지속적 신체구조와 연계된 운동이 산출해낸 결과물일 수 있다.

'앵커다움'을 질문한 설문안 10은, 시각적 요소가 같거나 비슷한 시각물을 우리가 관찰할 때, 좌나 우에 기본적으로 편향된 성향이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설정된 문항이었다.

그러나 좌우의 위치가 관찰자의 지각 이전단계에서 각각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작용하지 않으며 혹 작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차이는 무시할 정도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풀어 말하자면, 단순한 위치 때문에 좌나 우에 편향된 선호성은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좋다는 것이다.

끝으로 부차적인 발견점은 한국인들의 듣는 손은 약 91% 정도가 오른손이라는 점이다. 만일 양손듣기와 왼손듣기의 국민 점유율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비록 시각적으로 좌우가 동등하다고 판단될지라도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동등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시각적 동등성에 대한 기존의 관련이

론과 설문을 통해 한국인들의 이에 대한 성향을 분석, 평가해 왔다. 이제,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축약함으로써 결론 삼으려 한다.

-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각적 등가성은 한국인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 화면에서의 대각선은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방향보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방향으로 보다 상승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지적은 사실로 드러났다.
 - 화면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무거워보인다는 지적은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무시할 만한 정도 이내이다.
 - 자연현상의 묘사나 이에 대한 관찰자의 시각물 수용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오른손 듣기가 대부분인 한국인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한국인의 좌측 우위사상에서 오는 전래적인 시각적 표현은 지금도 우리 문화 속에 녹아 있다.
- 이상의 결론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시각적 등가성은 대체적으로 실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경도되는 일반적인 성향을 한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4. 감사

어려운 여건 가운데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준 부천대학의 함부현교수께 감사 드린다. 그리고 설문에 성의껏 응답해 주신 부천대학 광고디자인과 학생들에게도 감사한다.

참고문헌

- 교육출판공사 편집실, 유홍렬감수/ 한국사대사전/ 교육출판사/1980/
- 국립민속박물관/자료총서:2 홍배/국립민속박물관/2000/
- 오근재/민화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디자인학연구/Vol.9,1994/
- 이학/한수문화/한국지수문화협의회/1986/
- B. Klient저/오근재 역/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미진사/1996/
- 루돌프 아른하임 저/김춘일 역/미술과 시지각/홍성사/1982/
- 시에송령 저/김홍경, 신하령 공역/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연암출판사/1995/
- 신시아 메리스 단치크 저/오근재 역/디자인 디펜션스/미진사/2001/
- 헨리 글라이트만 저/임능빈 외 공역/심리학개론/교육과학사/ 1986

9) B. Klient저, 오근재 역, 인간의 시각 조형의 발견, 미진사, 1996, p.358